

하나됨과 나눔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오늘은 경건절제 및 환경주일로 지킵니다.
- 꾸러기학교 아빠캠프가 5일(수)부터 1박 2일간 학교에서 있습니다.
- 멋쟁이학교 학년별 여행이 3일(월)부터 3박 4일간 있습니다.
- 멋쟁이학교 4학년이 6일(목) 해외문화체험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 정례회의가 3일(월) 경기도 광주 LT혁신학교에서 있습니다.
- 이번주 목요일부터 성서일기 범위가 히브리서로 바뀝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장미숙 권사 ( 생일 감사 )

강단을 꽃으로 : 김성흠 청년 ( 생일 감사 )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22 호

2024년 6월 2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환경주일 공동기도문입니다.  
기후위기로 고통 받는 이웃들을 생각하며

주님,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소서.

1.5도라는 수치는 깨어있는 시민을 움직이게 했지만, 성장에 집착하고 물질을 숭배하는 이들에게는 하찮은 숫자일 뿐입니다. 지구별의 온도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올라갔고, 우리가 경험했던 사계절의 풍광은 옛 추억이 되었습니다. 지구별은 서서히 뒤틀리며 인류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지만 죽음의 종소리에 귀 막고 있습니다.

주님,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우리를 용서하소서.

죽음의 행렬에서도 맨 뒤로 빠지는 이들은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장마는 쾌적한 고층 아파트에서, 폭염은 빵빵한 에어컨 속에서, 지진은 안전 진단받은 견고한 빌딩에서 견딜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곧 무너질 미래성 위의 집에서 헛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주님, 고통과 두려움에 맞서는 이들을 구원하소서.

죽음의 행렬에서 등 떠밀려 앞에 선 이들이 있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며 타는 목마름으로 땅을 일구는 농민, 닦쳐오는 재앙보다는 밀려오는 고지서와 맞서는 땀내 나는 노동자, 꿈과 희망을 노래하기보다 미로 같은 현실에 갇혀버린 미래세대, 생존을 위해 집과 고향을 떠나야 하는 난민들.

주님, 포기과 절망에 무릎 꿇지 않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스스로 창조자가 되도록 창조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창조세계의 평화와 안식을 노래하고, 사랑으로 연대하며 죽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소서.

국가 권력과 기업에게 우리 생명을 맡기지 말고 마을마다 생태공화국을 만들게 하소서.

아픈 몸들의 해방과 부활을 먼저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준표 목사(손잡는 교회)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이웃생명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저는 암컷 흰 코뿔소 파투입니다. 2018년 45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세상에 남은 북부 흰 코뿔소는 엄마와 저, 둘 뿐입니다. 사람들은 코뿔소의 뿔을 얻기 위해 코뿔소를 마구 죽였습니다. 머지않아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치지 않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저의 사라짐은 우리의 사라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의 힘으로 우리의 멸절을 막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미 우리가 살아갈 곳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사람들의 욕심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쳐야 할 것이 그치게 하시고 이어져야 할 것이 풍성하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저의 죽음을 멸종이라 부를 사람들의 심정이 한 죽음을 향한 안타까움에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의 죽음이 자신들의 멸종과 잇닿은 우리의 멸종의 한 부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생명의 멸종이 무분별한 개발 때문이라면 그 개발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사소한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욕심을 갈무리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아갈 터전을 잃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동물들, 그 자리에 뿌리박고 한 걸음도 도망치지 못하는 식물들, 사람의 행패와 기후의 변화로 살아갈 조건과 환경을 잃어가는 생명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생명에게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몇 마디 신조로 사람의 마음 안에 옥여넣고 가두는 사람의 비행이 그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 그대로 회복하고 지켜나가기 위해 연대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열심을 지으신 만물에 부여주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국진 목사(대안교육기관 산돌학교)

## 한주간 말씀

“ 이방 나라들이  
네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못 왕이 네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네게 지어 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 이사야서 62장 2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521장 501장 499장  
기도 : 정승희 집사  
성경 : 이사야 60장  
제목 : 너는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1. 내용: 하나님께서 네 영광을 되찾아주셔서 사람들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What)

<문단구분>

1~2절 너는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3~9절 온갖 사람들과 재화가 너에게로 찾아올 것이다  
10~22절 주님께서 너를 높여주실 것이다

2. 의미: 새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Why)
  - 1) 하나님은 사람들을 모으실 것이다.
  - 2) 이방인들이 예배하러 올 것이다.
  - 3)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것이다.
3. 적용: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자. (How)
  - 1)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자.
  - 2)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자.
  - 3) 구원받은 사람들로써 품위 있게 살아가자.

## 함께 가는 삶

“더 나은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하며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을 안고 스물일곱이 되던 해, 예수원을 향해 길을 떠났고 그 길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시작했다. 공동체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한 생활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고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는 기쁨의 삶으로 초대되었다. 그 시절 영혼의 쉼을 찾아 매일 밤낮 없이 오시는 손님들, 늦은 밤 밥상을 몇 번이고 차리며, 잠자리를 마련해드리고 손님방 앞에 신발이 가득 찬 것을 보면 행복했다. 손님들이 사용한 시트를 가득 통에 넣고 발로 밟아가며 즐겁게 노래를 불렀다.

주방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장소였다. “장차 올 천국에도 주방이 있다면 나는 식탁을 준비하고 싶다!” 형제들과의 연합을 통한 하나님은 손님들을 섬기며 함께 예배하고 세상의 고통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행동하는 삶으로 나타났고 내 영혼의 기쁨이 강처럼 흘러넘치게 하셨다!! 오시는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쁨의 환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뛰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 후회 없이 사랑했던 시간” 이 시대는 환대의 식탁, 가난한 이웃을 향한 나눔, 외로운 분들과의 만남- 이 부름이 있어 감사할 따름이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나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이다.

혼자서는 부족하지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춤추게 하며 형제, 자매가 함께 있기에 가능하다. 나는 이 사랑의 길, 예수님을 따라간다. “제가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저를 사용하세요.” 지금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는 시간이 주어졌다. 이 특별한 시간을 감사하며 최 가족을 환대해 주시는 사랑방 가족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우리의 가는 사랑길 사랑방, 꾸러기부터 무림방까지. 사랑방에는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비움사랑방, 따뜻한사랑방 그리고 새싹사랑방이 있다.

새싹사랑방 황성자 사모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신명기 32 : 3-4  
67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로마서 4 : 7-8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588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이사야서 62 : 1-5  
520  
“이름에 부합한 삶” 정재훈 목사

설교자  
따뜻한사랑방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478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438(1)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기환 차현주 / 봉헌위원 : 서병욱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 공동기도문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관리하는 자들로서  
피조세계에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 이름에 부합한 삶

메시아께서 일하신다.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께서  
손수 일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으로 이방 나라들이  
시온에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며 못 나라의 왕들이 예루살렘  
이 영광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열심  
과 헌신으로 교회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새 이름을 받다. 한 사람의 이름 안에는 이름 자체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래, 야곱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이 새롭게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  
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로 태어난 시온을 교회  
라 부르시며 믿음을 가진 이들을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이름에 부합한 삶. 변화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에  
걸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이웃으로 여기고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  
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된 삶, 실천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정연갑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5월 센싱더스토리는 다니엘 이야기를 읽니다. 지난주에는 이야기를 듣고 교구놀이를 했고 이번주에는 역할극을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되어 환장장에게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여 눈 앞의 치킨과 포도주를 치우고 당근, 상추, 파프리카와 물을 받아 먹었습니다. 앞으로 삼년은 그런 것만 먹어야하는 거라고 생각해보려하지만 평소 야채에 익숙한 꾸러기는 당근부터 참 맛있게 먹습니다. 파프리카가 좀 힘든 친구는 제법 큰 조각에 좀 힘들어하긴 합니다. 각자 차례로 다니엘이 되어 집에 가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잡혀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선생님이 분장한 것을 알지만 그르렁거리는 사자가 좀 무서웠고 거기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소?"하는 왕의 물음에 "예"하고 대답하며 사자굴을 나왔습니다.

활동하는 사진도 찍어야하고 환관장, 모함하는 신하, 사자를 맡아야해서 어른이 부족해서 김영화권사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맡아 주셨습니다.

< 교사 : 정승희 >

### 어린이학교

어린이학교에는 '날개없는 천사들'이 계십니다. 평소에는 꾸러기+어린이에서 한 분, 멋쟁이에서 한 분, 이렇게 두 분의 부모님이 들어오셔서 점심식사 봉사를 하시는데 멋쟁이학교가 여행을 가거나 가정학습으로 학교에 오지 않을 때는 꾸러기+어린이 부모님 한 분만 점심식사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 때 봉사를 돕기 위해 약속된 횟수 외에 좋은 마음으로 한 분 더 들어오십니다.

또 매주 화요일 손이 많이 가는 간식이 나오는 날에도 한 분 더 자원

하여 들어오시는데 바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수고를 함께 해 주시는 분들이 '날개 없는 천사들' 이십니다.

비록 점심 설거지와 간식정리까지 하느라 피곤한 부모님의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더 놀다 집에 가겠다고 조르는 어린이들이지만 분명 부모님의 수고와 사랑에 감사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또 혼자 하기엔 버거운 상황을 서로 협력하여 해결해가는 부모님들의 방법을 어린이들이 잘 배워갈 수 있도록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6월입니다. 6월에도 많은 일들을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 교사 : 정다운 >

### 멋쟁이학교

5월이 어느샌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학년별 여행을 한 주 앞뒀을 뿐만 아니라, 4학년의 귀국 또한 코앞에 다가온 탓인지, 멋쟁이들 사이에서는 들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멋쟁이들은 틈이 날 때마다 자전거를 타거나, 지역 정보를 찾아보는 등 여행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모든 멋쟁이들이 모여서 자치회가 열렸고, 한 걸음 성큼 다가온 종강발표회에 대한 논의도 거쳤습니다. 열린 수업 시간에는 각자의 체격과 체력을 재고 기록하는 시간도 가졌답니다. 여러 가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들을 즐겁게 감당해내고 있는 멋쟁이들의 모습은 청춘의 한 페이지 그 자체입니다.

1학기에 떠나는 학년별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관계의 토대를 쌓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행지 선정부터 역할 분담, 예산 세우기까지 모든 과정을 서로 논의하고 가치관이 부딪치는 경험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더욱 멋진 사람들로 성장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따로 떨어져 있던 4학년도 귀중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모든 멋쟁이들이 움직이는 가운데 안전과 보호, 그리고 회복이 있기를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 할머니 장례식

지난 수요일에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올해로 91세가 되셨는데, 노환으로 몸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수요일예배 전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받았는데 왈각 눈물이 났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진용이도 눈이 빨래지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직 어린 민용이만 좀 멍하네요.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남편한테 언제 알려야 되나.. 고민을 잠시 하고 예배 후에 목사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조문을 가야하니 같이 내려가자고 하셔서, 큰 걱정거리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정태일 목사님께서 같이 가신다고 하셔서, 먼 길이라 안 가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니 '장손을 멀리 보내서 장례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이 미안하셔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 죄송하고도 감사한 말씀이었습니다.

남원에 내려가 이야기를 들으니 그 날 저녁 식사를 위해 누워계신 할머니를 깨웠는데 눈을 반쯤 떴다 감으시더니 숨을 크게 몰아쉬시고 천천히 맥이 사라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장례를 위해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증손주들까지 모이니 아이들은 마냥 재밌는지 자기들끼리 노느라 바쁩니다. 진용이와 민용이는 여기서 놀던 실력을 발휘해 아이들을 잘 돌봐주어 어른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발인하는 날, 새벽같이 일어나 억지로 밥을 입에 밀어 넣고는 발인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시골교회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된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장례를 지내면서 보니 아들, 사위들이 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고, 손주들이 빠짐없이 장례 마지막까지 참석하는 걸 보고 감동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지 고민합니다. 장례절차를 하나하나 눈 여겨 보는 진용이의 모습을 보며, 말이 아닌 삶의 모습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노미현 사모

##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이어진 전도사

찬송 : 489장, 359장, 133장

성경 : 잠언 9장 10-18절

말씀 : 어리석음과 대비되는 지혜의 근본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전쟁의 장애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세계의 만류에도 이스라엘이 라파 지역에 탱크 진입을 시작하였다. 1일 전에는 난민촌 공습으로 최소 45명이 사망하였고, 백만명도 넘게 운집한 피난민들과 거주자들에게 인도적 물자 공급도 막혀버렸다. 이러한 비극이 속히 끝나기를.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한공협을 위해>
  - 1) 한국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뜻대로 연합해나가도록
  - 2)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셔서, 지도자들이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 1) 마무리 되어가는 가정의 달, 지체들과 가정의 화목을 위해
  - 2) 환절기 건강을 위해

## <생활공동체 소식 >

봄별이라 하기에는 햇별이 다가워지는 요즘입니다. 나뭇잎도 이제는 연녹색을 지나 짙푸른 색을 띄며 그늘을 많이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공동식구들중 일부는 아침 일찍 아침기도회를 참여하고 바로 밭으로 가서 작물들을 돌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잡초가 무성히 자라고는 있지만 그래도 밭에는 깨가 싹을 띄우고 상추도 무럭무럭 자라고 완두콩도 여물어갑니다. 감자도 고구마도 쑥 쑥 자라고 있습니다. 풍성함이 넘치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 장영미 전도사 >